

류현진, 3경기 연속 '시즌 10승' 무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또다시 시즌 10승 달성예 실패했다. 류현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6피안타 1볼넷 5탈삼진 3실점(1자책점) 호투를 펼쳤다. 올해 놀라운 속도로 시즌 9승을 달성한 류현진은 최근 3경기에서 호투를 펼치고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호투를 선보였지만, 3-3으로 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가 시즌 10승 달성에 실패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50승 달성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콜로라도전 6이닝 1자책점 호투 불구 勝 실패

11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평균자책점 1.27

류현진은 최근 11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선보였다. 3실점을 기록했지만 자책점은 1점이었다. 평균자책점은 1.27로 조금 높아졌다. 메이저리그 전체 방어율 1위를 지켰다. 류현진의 출발은 불안했다. 1사 후 이안 데스몬드에게 2루타를 맞은 류현진은 데이비드 달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 위기를 넘기는 듯 보였다. 그러나 ‘천적’ 놀라 이레나도에게 적시타를 맞고 실점

을 내줬다. 이후 다니엘 머피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해 위기를 넘겼다. 1회 실점을 최소화 한 류현진은 2회 선두타자 크리스 아이아네타를 삼진으로 잡아냈다. 나차 큰 커브로 헛스윙을 유도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라이언 맥마흔을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블랜든 로저스를 삼진으로 숙여냈다. 커브가 결정적이었다. 1-1로 맞선 3회 선두타자 피터

램버트에게 안타를 내준 류현진은 다음타자 찰리 블랙몬을 내야땅볼로 유도했지만, 2루수의 포구 에러로 무사 1, 2루 위기에 몰렸다. 이어 이안 데스몬드에게 1타점 중전안타를 맞았다. 이후 이레나도에게 볼넷을 내줘 1사 만루 위기에 처한 류현진은 다니엘 머피를 2루수 땅볼로 유도했다. 그러나 블랙몬이 홈을 밟아 또 실점을 했다. 이어 아이아네타를 3루수 땅볼로 처리하고 이닝을 마감했다. 실책이 동반된 실점이라 자책점은 1점밖에 되지 않았다. 이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류현진은 4회 포심패스트볼을 앞세워 맥마흔과 로저스를 차례로 범타로 잡아냈다. 2사 후 램버트에게 또다시 안타를 허용했다. 이에 분발한 류현진은 블랙몬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5회 선두타자 데스몬드에게 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날카로운 견제로 주자를 묶었고, 2루에서 아웃을 이끌어냈다. 주자를 없앤 류현진은 달을 삼진, 이레나도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류현진은 3-3으로 맞선 6회 삼자범퇴로 이닝을 막아냈다. 다저스는 7회부터 류현진을 내리고 볼렌진을 가동했다. 이날 류현진은 107개(스트라이크 70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구속은 92.3마일(149km)이었다. 다저스는 연장 11회말 알렉스 버두고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5-4로 승리했다. 5연승을 올린 다저스는 시즌 53승 25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점주했다. 다저스는 지구 2위 콜로라도(40승 36패)와의 승차를 무려 12경기로 벌렸다.

수영대회 100배 즐기기



아티스틱스위밍 국가대표팀이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국체육장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대비한 훈련을 하는 모습.

“수영장 바닥 닿으면 감점”...이색 규정

수구, 두 손으로 공 잡기 금지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반칙은 상대를 때리거나 물속으로 가리얏할 경우 주어지며 1회 파울 1분간 퇴장을 당하고 3회 반칙이면 경기에서 빠져야 한다. 경반칙은 두 손으로 동시에 공을 잡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가벼운 반칙을 할 때이며 프리 스코가 부여된다.

수중발레로 불리는 아티스틱스 위밍은 3m 이상의 수심에서 펼쳐지는 경기로 수구처럼 바닥에 발이 닿으면 안된다. 3분에서 5분가까이 물에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진 종목은 동점이 통일돼야 한다. 다른 수중 종목의 경우 심판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지만 아티스틱스위밍은 6~7명으로 구성된 2개의 심판부가 피겨스케이팅 처럼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를 부여해 우열을 정한다. 아티스틱스위밍은 대표적 여성 종목으로 불렸지만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부터 혼성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오픈워터스위밍은 5·10·25km를 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수영마라톤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육상의 마라톤처럼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우승을 차지한 사진 좌측 진중 팀 선수와 준우승 팀인 덕래 팀이 시상상을 마치고 김중규 광양시지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지회장 김중규)에서 지난 20일 광양시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제35회 노년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양시 노인 게이트볼 동호인 20개 팀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

전한 가운데 김중규(광양시지회)지회장은 대회사에서 “매년 열린 대회지만 어르신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다.”며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100수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축사를

광양시 전천후게이트볼장서 20개 팀 200여 명 화합의 한 미당
우승 진중 팀·준우승 덕래 팀·공동 3위 매화 팀대인동 팀

통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아직 시설되지 않은 먼 단위의 실내구장을 내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광양시장의 노인 복지시설에 큰 관심과 배려에 박수

를 박수 보내기도 했다. 이 대회는 만 65세 이상 대한노인회 회원 자격을 소유한 선수들로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승에 진출한 덕래 팀과 진중 팀은 접전에 접전 끝에 진중 팀(박성진 주장 구재봉 조문자 박을남 박순자 배말순 선수)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해 부상과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준우승에 그친 덕래 팀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년을 약속하며 승자를 축하했다. 공동 3위는 처녀 출전을 한 매화 팀과 대인 팀이 차지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코리안 쥘비’ 정찬성, 모이카노에 58초 TKO 승

‘코리안 쥘비’ 정찬성(32·AOMG)이 복귀전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58초였다. 정찬성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154 메인 이벤트 페더급 브라질 출신의 헤나투 모이카노(30)와 경기에서 1라운드 58초 만에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11월 아이르 로드리게스

(멕시코)에게 KO패를 당했던 정찬성은 7개월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승리를 따냈다. 랭킹 5위인 모이카노를 꺾으면서 타이틀전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통산 전적은 15승(5패)이 됐다. UFC에선 5승(2패)째를 거뒀다. 정찬성이 1라운드에서 경기를 끝낸 것은 지난 2011년 마크 호미냐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8년 만이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굴,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